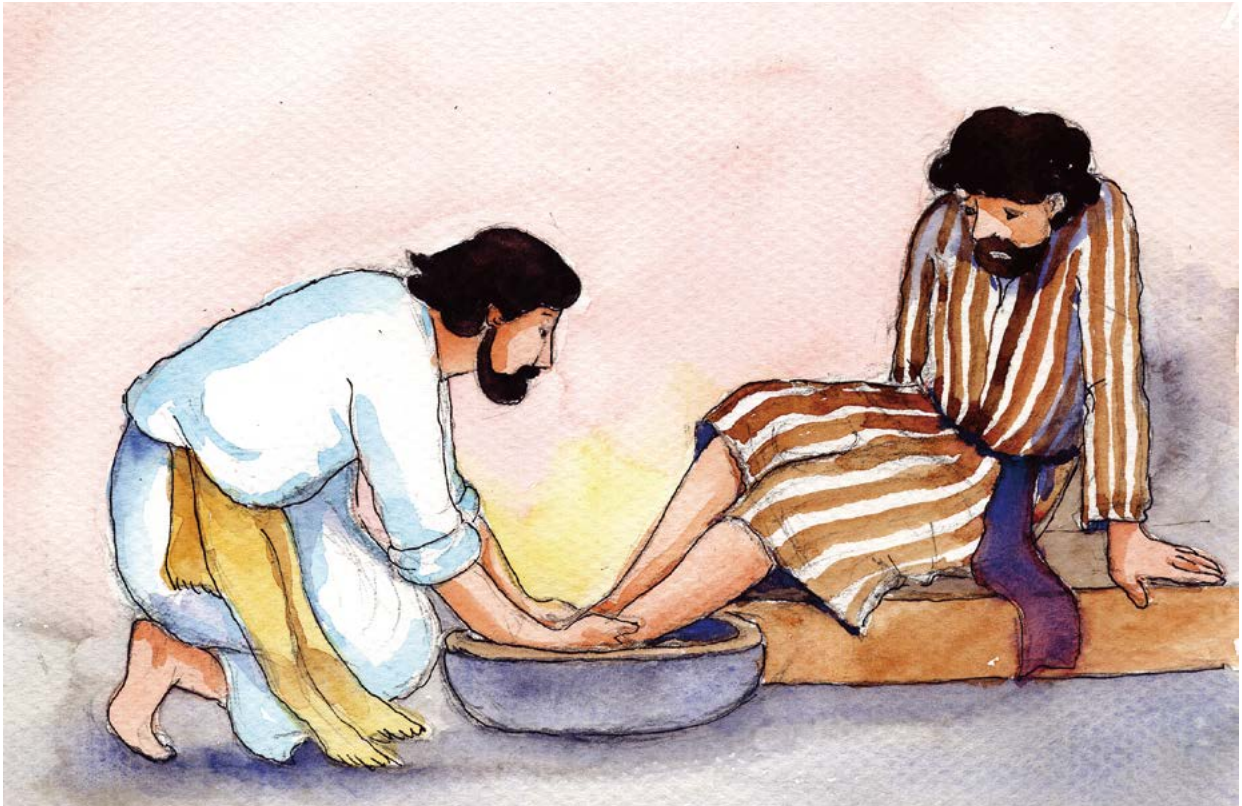


발을 씻기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20절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지들과 저녁을 먹던 중에 예수님은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예수님께서서 저의 발을 씻기시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 “그렇지만 저의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 “예수님,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님: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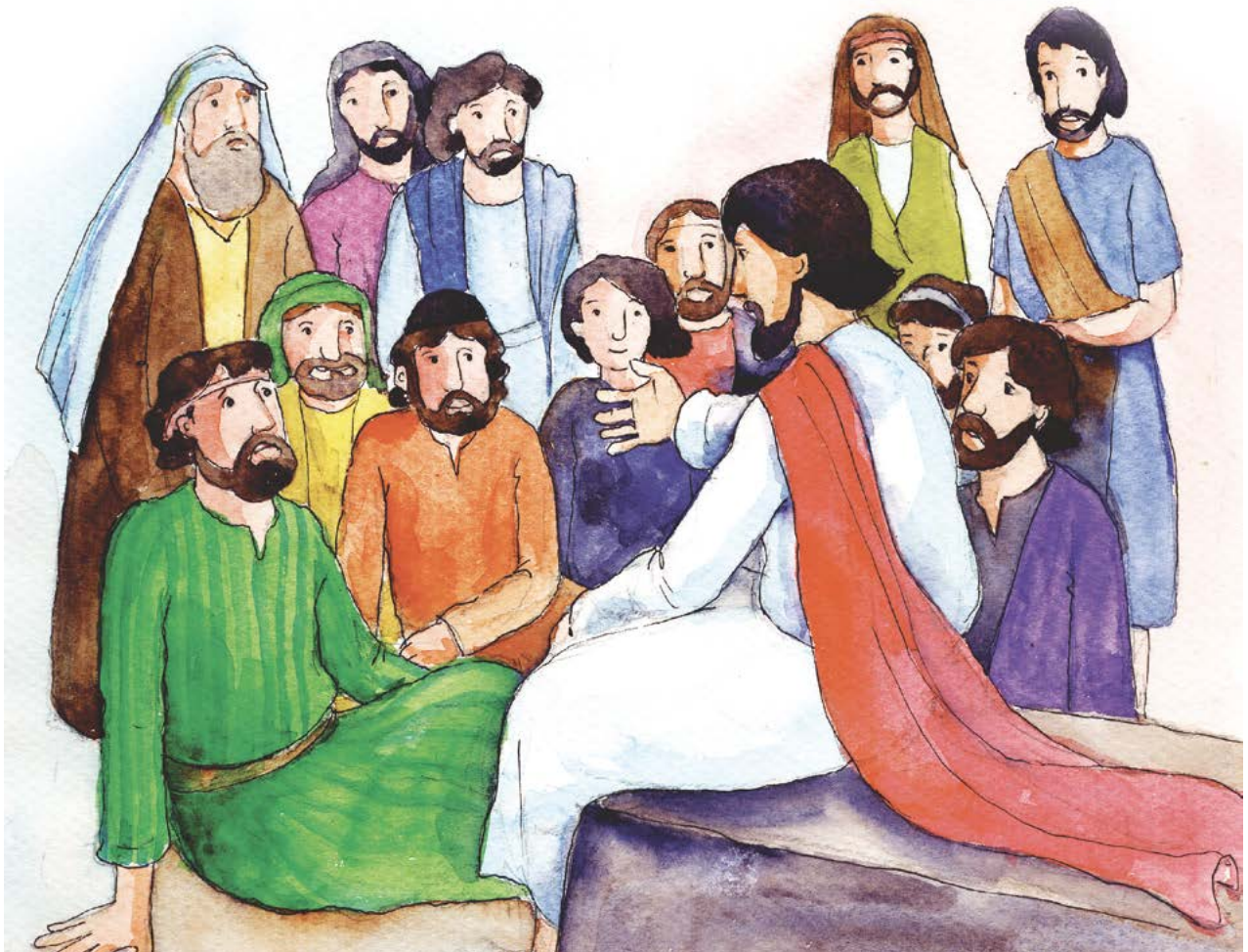


36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겹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준 이유를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¹⁾주라 하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지만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도다. 너희도 나처럼 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¹⁾주 : 만백성의 주인이라는 뜻.



오늘의 공부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1.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

- ① 더러운 발로 다니면 집안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 ② 예수님께서 종이시기 때문에
- ③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 ④ 제자들이 목욕하지 않았기 때문에

2. 나의 발이 더러울 때에 내 발을 씻겨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

- ① 엄마 ② 친한 친구 ③ 교회학교 선생님 ④ ()

3. 왜 그 사람들이 내 발을 씻겨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본을 보여 주신 예수님

1.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① 내가 선생이고 너희의 주인이지만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겨 주는 것이 당연하다.

② 내가 선생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다음부터 높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어라.

③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겠다.



발을 씻겨 준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할지니 은 허다한 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8)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다음 그림과 이야기를 보고,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 보세요.

원철이는 이번 주 주번입니다. 쓰레기통을 나르다가 너무 무거워서 그만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 나는 위의 세 사람 중 어떤 사람과 비슷하나요?

?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라면 위 세 사람 중 어떤 사람처럼 되어야 할까요?

오늘의 말썸을 배우고

?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실천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 정한 사람

* 섬긴 일

* 결과나 느낌



예화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저는 하늘나라의 천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고 있습니다. 그 손을 찾으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팔찌를 걸어줄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천사님, 제 손을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 손입니까? 저는 이 손으로 늘 꽃밭의 꽃을 만지기 때문에 제 손에서는 아름다운 꽃향기도 난답니다.” “천사님, 제 손도 좀 봐 주세요. 얼마나 깨끗한 손입니까? 저는 제 손에 먼지만 묻어도 곧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로 깨끗하게 씻는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한 여자에게 천사가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어요?” “천사님, 제 손은 보잘것 없기 때문에 보여 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손이 너무 거칠어 졌습니다. 찬물에 빨래를 하다 보니 손이 얼어서 터진 곳도 있습니다.”

천사는 얼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팔찌를 꺼내서 마지막 여자의 손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42)

부모님
난

선생님
난